



한국 2002-5-2

‘그린피스 창설’ 폴 왓슨 일생 영화로

에이던 퀸 주연 ‘바다의 전사’

세계적인 환경
운동단체 그린피
스의 창설 멤버였
던 폴 왓슨의 일
대기가 영화로 만
들어진다.



1일 BBC 뉴스
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영화제
작자 피트 크루넨버그가 그의 삶과 환
경보호 투쟁을 그린 ‘바다의 전사(戰
士)’제작을 추진하고 있다. 주연인 왓
슨 역은 에이던 퀸이 맡기로 했고 왓
슨의 후원자인 배우 피어스 브로스넬
과 마틴 선도 출연을 약속했다. 촬영은
8월쯤 시작할 예정이다. 제목은 그가
바다에서 시위할 때 모는 배 이름에서
따왔다.

캐나다 출신인 왓슨은 71년 그린피
스 창설을 주도한 이후 불법 고래잡이
와 물개 사냥, 핵실험 추진 등에 맞서

솔한 싸움을 해 왔다. 그러나 포경선을
들이받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방
식을 택하지는 주장을 동료들이 거부
하자 77년 그린피스를 떠났다.

그는 곧바로 ‘바다의 목자(牧者)’라
는 단체를 만들어 다시 바다로 나섰다.
81년에는 시베리아 연안 불법 포경을
폭로해 소련 해군의 추적을 받다가 하
면 94년에는 노르웨이 함정으로부터
총격을 받기도 했다. 각국 경찰에 체포
된 적도 많다.

이날도 그는 ‘바다의 전사’호를 몰고
과테말라 연안에서 불법 상어잡이 어
선을 쫓고 있었다. 왓슨은 그린피스의
관료화에 대한 비판자로도 유명하다.
그는 BBC와의 통화에서 “그린피스는
환경보호론자라는 상표로 포장한 관
료조직 또는 기업체로 전락했다”며
“그들은 사진찍힐 만한 이벤트에나 모
습을 드러낼 뿐 불법 포경을 막기 위
해 하는 일은 별로 없다”고 비난했다.

/이광일기자 kilee@hk.co.kr